

先史·古代의 手工業 生産遺蹟 研究를 위한 提言

손명조_국립제주박물관

- I. 머리말
- II. 수공업 생산유적의 인지
- III. 수공업 생산유적의 조사 방법
- IV. 수공업 생산유적과 實驗 復原
- V. 수공업 생산유적과 自然科學的 分析
- VI. 生産과 流通
- VII. 맺음말

I. 머리말

고고학에서 다루는 物質 資料에 대해서는 形式論, 時期 區分論, 分布論 등을 통해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다루는 자료의 生産, 技術的인 측면에는 다소 피상적인 관념에 치우쳐 현대의 技術 觀點으로 접근하여 愚를 범하기도 한다. 이는 조사되는 유구의 수가 적은 이유도 있지만 生産 技術에 관한 정보의 不在와 無關心이 유적의 발견을 막은 결과이기도 하다.

최근의 늘어나는 유적 발굴에 비례해 手工業 關聯 遺蹟의 조사 예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이 수공업 생산유적을 정리하기에 더욱 적절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생산유적에 대한 인식 재고는 물론 資料 集成 및 개별 유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아울러 수공업 생산 관련 유물·유구는 많이 접해 보지 못하므로 조사 연구 과정에서 자칫 看過할 수 있어 이번 현황 발표와 자료 집성은 향후 조사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조사된 수공업 생산유적 역시 그간 조사상의 문제점(유구의 범위, 해석 등)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점도 再考하여야 할 것이다. 유물의 생산은 단순한 기술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타 연구에서 해결하기 못한 실마리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순수 고고학에서의 물질 복원은 물론 이러한 생산유적을 통해 어떠한 연구 과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초보적인 수준에서나마 다루어 향후 연구 방향성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II. 수공업 생산유적의 인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생산유적의 범위는 다종 다양하며 매우 광범위하다. 이를 크게 구분하면 농업·어업·가축업·수렵 등과 같은 生計를 위한 食糧 生産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유적과 일상에 필요한 生必需品, 道具 또는 武具는 물론 숲, 채광과 같은 간접적인 생산품까지를 포함하는 생산유적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후자는 鑛業·窯業 등으로 세분할 수 있지만 이를 포괄하는 용어로 수공업 생산유적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즉 수공업 생산유적은 원료의 생산과 제품의 생산이란 두 측면을 公有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직접적인 제품 제작과 관련하는 유구는 물론 제품 제작에 수반되는 각종의 附隨的인 遺構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토기, 기와의 생산에 原料 採土址, 製作 工房, 積載場, 窯, 廢棄場 등 매우 다양한 부속 시설이 해당되며, 철의 생산에서도 採鑛址, 각종의 爐施設과 가공 시설, 송풍 시설, 야적장, 슬래그 폐기장과 같은 관련 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편 수공업 생산유적에는 그 生産 規模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소규모의 자급을 위한 自家生産과 流通을 전제로 한 大量 生産의 유적으로 나누어지는데 前者는 초기 단계의 생산 형태로서 고고학 연구에 있어 기술적인 복원 측면에서 다루어질 수 있지만 後者, 즉 대량 생산의 경우는 剩餘生産物의 유통을 위한 전제의 생산으로 여기에는 기술, 교통, 공급과 수요라는 생산, 경제적 요인은 물론 分配, 奉納 등 社會政治的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수공업 생산유적의 이해와 연구의 필요성이 이 후자의 생산 형태에 있다고 본다.

III. 수공업 생산유적의 조사 방법

앞서 언급하였듯이 수공업 생산유적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발굴조사에서 이들 유적에 대한 기본적인 知識 習得이 없는 경우 생산 유구의 조사는 看過될 수밖에 없다. 즉 생산유적에서는

完製品보다는 제품 제작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의 副産物이나 未成形品, 원재료 등과 제작 공정에 쓰이는 각종의 도구와 저장, 폐기 시설 등 흔히 볼 수 있는 완성된 유물보다는 工程狀의 유물과 유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대부분 熱을 이용한 조업이 많고 조업 성격상 완료 후 모두 廢棄시켜 버리는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유구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조차도 매우 힘든 실정이다. 이렇게 복잡한 양상을 가진 것이 생산유적의 특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사 방법보다 세밀한 관찰은 물론 제작되는 유물의 제작 공정의 이해가 부족할 경우 많은 부분을 조사 과정에서 놓쳐버릴 가능성이 높다.

오늘 각 주제별 발표에서 언급되었지만 간단하게 각 수공업 생산유적에서 출토되는 제작 공정 속의 유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금속 유물의 제작에는 기본적으로 원료가 되는 원석, 또는 제련된 금속이나 폐기된 원재료와 함께 가장 많은 것이 열을 가해 추출되는 각종의 슬래그(slag) 등으로 이 슬래그는 鐵, 靑銅 등 原鑛石의 차이와 製鍊 공정, 鎔解 공정 등에 따라 각기 달리 나타난다. 이외에도 送風 道具와 주물시의 도가니 등이 특징적으로 보이며 이외 薄片, 粒狀滓, 小形 破片 등이 있다. 가마(토기, 기와) 유적에서는 노벽편은 물론이며 각종의 이상재, 공방에서 사용되는 점토와 각종의 성형 도구 등이 보이며 유리 또는 금은 세공에서는 각종의 파편과 함께 도가니의 확인이나 노시설 등이 확인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이러한 유물들은 제 위치를 갖는 것이 대부분 적으며 攪亂層 또는 폐기된 장소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산유적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제 위치를 잃은 유물이라도 그 유적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물만으로도 생산 유구의 복원이나 기술력 복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후술할 실험고고학을 통한 복원과 자연과학적 분석을 통해 충분히 복원 가능하기 때문에 발굴조사시 관련 유물의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수공업 생산유적은 금속(야금업), 요업 등 매우 한정되어 있다. 織物 생산, 木器 생산 등과 같은 더 많은 수공업 유적의 발견은 유물의 기술적인 제작 공정의 이해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고고 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조사 과정에서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자료 집성과 기본적인 수공업 관련 유적의 현상과 연구 방향을 제기하는 이유이다.

IV. 수공업 생산유적과 實驗 復原: 기술 복원의 필요성

생산유적의 복원과 고대 기술의 복원을 위해서는 산재된 생산 관련 유구의 실험 복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동안의 실험 복원 연구는 각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지만 그다지 많은 성과를

내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는 기술적인 한계성이 있는 유물도 있지만 이보다는 단순한 기술력 복원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의 연구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석기 생산의 경우 구석기시대의 석기 제작 복원은 상당히 진행되었지만 이후 신석기, 청동기시대의 석기 제작에 관한 실험적 연구는 매우 희소한 실정이다.

토기, 기와 등은 이전 제작 기술에 대한 연구가 있었지만 최근 주춤한 상태이다. 형식학 분류에서도 기술적인 부분이 당연히 분류의 한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제작 기술만으로 연구가 단독적으로 진행되는 못하였다. 또한 토기는 단순한 成形뿐만 아니라 燒成 過程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마의 발굴조사가 되었지만 가마의 복원을 통한 꾸준한 실험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철기의 경우 역시 그동안 유적이 발견이 없어서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석장리 유적 이후 3차례에 걸친 실험 복원이 있었지만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아직 古代 爐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 역시 지속적 실험 복원이 필요하다. 반면 단야 기술은 많은 출토 철기를 통해 충분히 기술 복원이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실지 匠人을 통한 실험은 매우 한정적이었다.

즉 각 분야에서 부분적인 실험은 계속되고 있으나 그 자체 많은 한계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먼저 실험고고학을 위해서는 이 부분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장인들 또는 제작 관련자들과의 공동 연구가 꾸준히 되고 있지 못하다. 결과물에만 치우친 나머지 그 과정 속에 보이는 고고학적인 조사 결과와 현재의 기술적인 熟練度, 제작 방식 등이 충분히 共助되지 못한 채 별개로 진행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실험고고학 수준을 벗어나 行事性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실험 복원은 한두 차례의 檢證만으로 복원될 수는 없다. 수많은 施行 錯誤을 거쳐 얻어질 수밖에 꾸준한 持續的인 실험 복원만이 진정한 기술 복원에 접근하는 방식일 뿐이다. 아울러 실험 복원에서는 단순한 經驗值의 產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보다 과학적인 데이터와 중간 과정의 부산물과 최종 결과물의 자연과학적 분석등이 수반될 때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V. 수공업 생산유적과 自然科學的 分析

최근 들어 발굴조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유물의 출토로 자연과학적 분석 방법을 통한 유물 해석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발굴조사 보고서에서 분석의 頻度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과학 분석의 내용은 대부분 組成物質의 특징과 원료 및 原產地 추정, 熱의 이용 정도와 기술력의

복원 등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고학적 발굴 성과와 자연과학적 분석의 공동 연구는 매우 바람직한 사실이며 특히 수공업 생산유적에서의 이러한 체제는 매우 理想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공업 생산유적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분석은 기존의 취락지 또는 분묘 유적에서 출토되는 완성된 형태의 유물을 분석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다. 먼저 生産地를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생산지에서의 특징적인 기술, 또는 원료, 재료의 특이성이 抽出된다면 생산지에서 소비지로의 移動 狀況과 分布 狀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결정적인 端緒를 제공해줄 수 있다. 또한 생산지별 기술 수준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기술력의 고하에 따른 생산물의 차이 및 중앙과 지방(또는 중심지와 주변 지역)에서의 생산 관계를 알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생산유적에서 나온 유물의 분석은 유적의 특징상 많은 경우는 제품 생산 공정의 중간 과정에서 나오는 副産物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過程을 이해할 수 있는 절대적 자료들이다. 특히 불을 이용하여 원료에서 내재된 물질의 변화 양상을 자연과학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제품 생산을 위한 온도의 이해와 중간 掲載物의 추출 방법, 添加劑의 종류와 이유 등 기술적 難易度가 파악 가능한 점 등 유물의 해석에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이를 위해 先決할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다.

첫째 자연과학적 분석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다. 어떤 유물을 분석하더라도 몇 개의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구해낸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사 그와 유사한 데이터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信賴度가 證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신뢰도는 무수히 많은 자료의 분석 결과가 統計的으로 정리되고 그 안에서 추출되는 集合群이 生成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재의 상황으로는 아직도 데이터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자연과학적 분석의 依存性이다. 생산유적에서는 제품 생산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유구를 남기고 있다. 즉 고고학적 발굴조사를 통해 각종의 유구에 대한 해석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것이며 그 결과만으로도 기본적인 기술력과 생산 체계 등은 推論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 자연과학적 분석이 더해져 수정 보완 등의 공동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분석의 결과에만 의존하여 정작 확인 가능한 고고학적 증거들이 오히려 무시되거나, 분석 결과만으로 技術的 接近을 시도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과학적 분석과 고고학적 조사 결과가 전혀 分離되어 분석을 위한 분석도 진행되고 있다. 단순한 물질의 현상만이 아닌 고고학적 발굴을 통한 해석 등 많은 조건을 이해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無意味하다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일부에서는 분석 방법이 늘 일정하고 분석 결과 역시 거의 동일한 내용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이다.

VI. 生産과 流通

수공업 생산유적에 대한 연구는 단순한 技術力 復原이 목적이 아니라 자체적인 消費를 넘어 剩餘 生産物에 대한 流通 構造를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생산과 유통을 통한 經濟 活動 樣相과 이와 연관된 당시 社會構造 問題 및 政治的 狀況의 이해와 연구가 目的이라고 할 수 있다.

고고학에서 많은 부분의 연구는 物資의 移動에 관한 사항이다. 즉 어느 지역의 물자 또는 동일 제작 기술 제품이 어디로 이동하였는가를 통해 정치사회적인 영역까지 해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공업 생산유적의 연구는 취락, 분묘를 중심으로 한 고고학 연구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뿐만 아니라 물질 자료를 통한 연구에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여 주기 때문이다

그럼 과연 어떻게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과정을 해석하고 유통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개별적 연구 방법은 무엇인가?

먼저 수공업 생산유적은 생산 기술력과 함께 생산 구조, 즉 生産 集團의 문제와 직결되며 이 집단의 성장 과정과 統廢合 過程을 이해함으로써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어떠한 생산 집단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집단의 성격과 어느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집단의 성격이라고 함은 統制 單位에서 국가 생산인지 지역 생산인지와 생산 품목에 따른 단일 제품 생산 집단인지 복합 제품 생산 집단인지 등의 문제와 아울러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위 기술 집단인지 하위 기술 집단인지 등을 성격을 파악함으로써 생산 집단의 성격을 규정지으며 어떠한 有機的인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생산 집단의 성격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地域 流通圈의 파악이다. 이는 생산유적과 집락의 분포 상황과 고대의 交通路(육로, 수로)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 유통권은 생산 집단을 통일국가 이전까지는 누가 장악하는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된다.

그러나 유통권은 생산 집단이 개별적 생산 형태로 통합된 양상이 아니더라도 據點 生産 團地의 교통망을 교역권을 정치적으로 장악함으로써 유통질서를 통해 생산 집단을 장악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VII. 맺음말

事物을 바라보는 視覺은 개인의 性向에 따라 매우 다를 것이다.

어떤 土器를 처음 대할 때 많은 사람들은 각기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을까? 언제 만들었을까?”

까? 누가 만들었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등 매우 다양한 疑問을 提示할 것이다. 의문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하건 이들은 모두 나중에 하나씩 順次的으로 풀어나가게 된다.

이번 역사학대회의 主題를 手工業 生産遺蹟으로 정한 것은 이 중 “어떻게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을 시작으로 과거 인간들의 삶을 찾아 풀어가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아직까지 많은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정리가 되지 않은 만큼 많은 사람들이 公有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이번 준비 과정에서 수공업 생산유적이란 테마는 아직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단계로 연구의 성과보다는 이러한 내용을 알리고 향후 연구 방향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많은 虛點도 내포하고 있다. 다만 향후 이 테마가 한국고고학전국대회의 주제가 되어 深度 깊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평가되길 바라며 發題에 갈음하고자 한다.